

봄날, 2천년의 앞에서 장자를 읽다

문명사적 전환기에 음미해보는 장자의 정신

김진경 · 시인

장자에 실린 우화 중 가장 유명한 것 중의 하나가 혼돈(混沌)에 대한 우화다. 우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해는 숙(儻)이라는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해는 홀(忽)이라는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다. 중앙을 다스리는 임금은 혼돈이었다. 어느 날 숙과 홀이 혼돈이 다스리는 땅에 놀러왔다. 혼돈은 숙과 홀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숙과 홀은 어떻게

이 융숭한 대접에 보답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눈, 귀, 코, 입의 일곱 구멍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이 혼돈에게만 그것이 없다. 어디 시험삼아 구멍을 뚫어주자." 이것이 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었는데, 7일이 지나자 혼돈은 그만 죽고 말았다.

이 우화를 두고 사람들은 대개 "자연 그대로 놓아두어라(無爲自然)"는 장자 사상의 핵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더 통속화해 "너무 따지면 될 일도 안 된다" 정도로 풀고 만다. 물론 이러한 해석들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위 이야기의 근본을 이해한 해석은 아니다. 위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돈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중국 주류사상에 신랄한 풍자

중국의 문헌 《산해경》에 보면, 혼돈의 모양은 "그 모습이 누런 자루와 같으며, 빨간 불처럼 붉고, 다리가

여섯에 날개가 넷이 있다. 혼돈은 얼굴이 없으나 가무(歌舞)를 안다"고 묘사돼 있다. 이는 다름 아닌 태양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태양이 가무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중국의 주류를 이루는 민족은 태양신을 숭배했고, 태양신에게

문명사적 전환이 이뤄지는 2천년대를 코앞에 둔 마지막 해, 만물이 새로이 생명을 얻는 봄날 중국 문명에 대변혁을 일으켰던 장자의 정신을 음미해 보는 것도 권할 만한 일이다.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기득권 구조의 언저리를 맴돌기만 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는 더욱 그렇다.

노래와 춤으로 제사를 지냈다. 태양신이 노래와 춤을 즐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뭐하러 가무로 제사를 지냈겠는가? 그러나 혼돈은 중국 주류문화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주류문화인 유교의 유(儒)는 원래 제사의례를 주재하는 관직의 명칭에서 비롯됐다. 공자의 집안이 대대로 이 직책에 종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예악(禮樂)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을 알고 보면 장자의 혼돈에 대한 우화는 태양신 숭배에 연원을 두고 있는 중국 주류문화, 주류사상에 대한 신랄한 풍자다. 혼돈은 중국에서는 바보 명칭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명칭이 바보인 태양신의 바보 같은 죽음'을 말하고 있는 혼돈에 대한 우화는 경직된 주류문화에 대한 신랄한 공격이자, 사상적 혁명이었다. 장자가 일으킨 사상적 혁명은 중국 문화를 풍성하게 가꾸는 원천이 된다.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던 테서 다신교(多神敎)로의 전환, 음(陰)과 양(陽), 천(天)과 지(地)의 이분법의 사유체계에서 천(天), 지(地), 인(人)을 기본 축으로 하는 다원적 사유체계로의 전환이 장자의 출현을 계기로 이뤄진다.

다원적 사유체계로의 전환

문명사적 전환이 이뤄지는 2천년대를 코앞에 둔 마지막 해, 만물이 새로이 생명을 얻는 봄날 중국 문명에 대변혁을 일으켰던 장자의 정신을 음미해 보는 것도 권할 만한 일이다.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기득권 구조의 언저리를 맴돌기만 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는 더욱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사상적 혁명을 일으켰던 장자의 정신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장자와 관련한 해석이 첨가된 대부분의 책은 그 해석이 고식적 틀에 묶여 있거나, 편의적이고 통속적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원문만 번역된 것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음미하며 읽어보는 게 좋겠다. ♦

